| 현불 논단 |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을 환영하며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6월23일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
종단 대표 포교단체로서 활동 기대돼
전법 포교는 교단 흥망 좌우하는 요소
신도조직 강해져야 종교는 힘을 얻는다

시대 변화 대처 못하면 생존 불가능해
공부하며 깨어있는 여성불자 양성해야
여성불자회, 불교 중흥 전기 마련하길

지난 6월 23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900명의 여성 불자들이 모여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를 창립했다. 발기인으로만 1080명의 발기인을 모집됐다. 그동안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법 포교가 침울했던 분위기를 쇄신하는 교단의 쾌거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교교단이 새롭게 중흥하는 전기(轉機)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종단 포교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교구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교구별, 지역별 신도조직을 구성하여 종단을 대표하는 포교단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종단과 교구본사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여성의 권익과 대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앙신도회, 포교사단과 함께 전국여성불자회는 종단의 대표 포교조직으로 3개의 축을 형성해서 새롭게 전법 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교단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전국여성불자회가 돼야 한다. 힘이 없는 교단이나 조직단체는 사회를 올바로 향도할 수가 없다.

만해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조선불교가 유린된 원인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며,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화 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설파했다. 종교의 세력은 신도의 조직 즉, 신도 수이다. 신도 조직의 세력이 생기면 자동으로 포교가 된다. 따라서 포교 전법은 교단의 흥망을 좌우하는 종교의 생명이다.

한국에서 불교여성학을 최초로 강의하고 정리한 이영자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와 여성〉에서 "여성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인 여성에 대한 자각 없이는 현대 한국불교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 여성은 불교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법회 참석과 운영, 사찰 운영자금(불사 보시금), 봉사활동 등에서 역할과 활동하는 대부분이 여성 불자이다. 여성 불자의 능력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대사회는 양성평등 사회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됐고 사회활동도 활발하다. 자랑스럽고 당당한 불자로서 항상 깨어있는 여성불자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전(불교성전)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삶의 길과 깨달은 내용을 실천하는 신행을 해야 한다. 여성불자는 대승보살로서 경전교육과 전법 홍포를 수행으로 삼고, 보현행을 실천하는 불교신행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불교교육과 중생 포교는 불교교단의 명운이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승만경〉에 승만 부인은 "저는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어받아 어리석은 자를 굴복시키고, 올바른 정법을 널리 펼 것을 서원하나이다"라고 정법을 수호하는 원을 세웠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김의정 회장은 자타가 공인한 한국불교의 지도자이다. 뛰어난 지도력으로 잘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사부대중은 서로 화합하고 존중해야 한다. 특히나 보수나 진보의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젊은 불자로부터 지탄과 외면을 당해 교단이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나 단체는 항상 위기이다.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다. 전국여성불자회가 펼치는 신행으로 한국불교가 치마 · 노인 · 기복불교에서 탈피해 항상 참신하게 젊어지고 새로운 혁신불교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社 說

선암사 소유권 분쟁, 이제는 멈춰야

순천 선암사를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 간 지속돼온 소유권 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항소심에서 조계종선암사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등기의 실제 이행자인 윤선웅(조계종선암사 4대 주지, 예비적 피고인)에 대해 조계종 선암사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태고종)측이 부담토록 했다.

이번 소송은 소유권 분쟁의 핵심소송으로 주목받았던 만큼 판결 이후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태고종측 승소지만 법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제기되고 있어 상고심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양 종단이 사찰을 두고 소유권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모양새가 우려스럽다. 물론 선암사 소유권은 양 종단에 더없이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벌써 수년째 법적공방이 지속되면서도 법적으로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이유는, 이 사안이 단순한 재산분쟁을 넘어 역사와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암사를 두고 이어지는 소유권 분쟁은 한국불교의 아픈 역사에 기인하고 있다. 수년째 지속되는 소송에 따른 불자들의 씁쓸함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양 종단이 법적공방을 멈추고 소통에 기반한 전향적인 합의를 통해, 화해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길 바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흥천사 동종 환수, 범불교적 관심을

7월 2일 한국미술사연구소는 '흥천사 대종 환지본처 학술대회'를 열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흥천사 동종'이 흥천사로 환수돼야 하는 당위성을 논의했다. 이날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흥천사는 태조의 정비인 신덕왕후의 원당이자 황화방(덕수궁 북쪽) 일대에 창건된 사찰로 현재의 흥천사가 그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종에 의해 정릉이 후궁릉으로 강등되며 사을한(현 정릉)으로 이전하고 여기에 황화방 흥천사에서 분사(分司)된 신흥사가 건립된다. 하지만 황화방 흥천사는 연산군과 중종 대에 두 차례 화재로 전소돼 폐사된다. 유생들의 패행으로 벌어진 방화였으나 큰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흥천사 동종의 500년 유랑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다.

이후 송시열의 간청으로 정릉이 다시 왕후릉으로 복위되며 현재 흥천사가 능침사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흥선대원군이 '흥천사'로 사명을 변경하며 원(原)흥천사의 역사성을 현재 흥천사가 계승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현재 흥천사 동종은 야외 전시물로 전락할 위기다. 문화재청이 국립고궁박물관 앞에 보호각을 설치해 동종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1910년 이왕가박물관으로 흥천사 동종이 옮겨진 모습을 보고 당시 언론인 차상찬은 "미술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간 행랑살이를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1910년과 2022년 현재와 흥천사 동종의 처지는 비슷해 보인다. 성보로서의 위상은 빛을 바랬고, 야외 전시물로 대접받고 있다. 언제까지 성보를 '문간 행랑살이'를 하게 둘 것인가. 흥천사 동종의 유랑은 끝내야 한다. 범불교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석도의 일획

한 발만 내딛으면 북한강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절벽 끝에 소나무가 휘늘어져 있다. 바위 틈새에 발 돋음하고 선 소나무가 바르르 떠는 것 같다. 바람이라도 몰아치면 저 몸을 어찌 가눌 것인가. 강물을 향해 잔뜩 허리를 구부리며 가녀린 팔로 낭창거리는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언젠가 보았던 중국 황산의 소나무들도 삼학산의 소나무처럼 새가 되어 날아오르지 못하고 온 몸으로 용트림하고 있었다. 황산의 소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몸이 뒤틀리도록 누구를 기다려왔던 것일까. 수많은 제왕들과 시인 묵객들이 황산을 찾아왔다. 그들은 소나무의 격조 높은 품위와 빼어난 수려함을 영객송, 단합송, 비룡송, 공작송, 기린송으로 찬미했지만 황산 소나무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는 어수선한 시대에 석도(石濤, 1642~1702)가 전국을 떠돌다가 황산에 들렀다. 우뚝 솟은 봉우리들과 봉우리를 덮은 구름바다 그리고 기이한 소나무가 하나로 어우러진 풍경은 석도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가 지금까지 그렸던 산수화를 새로운 예술세계로 승화시켰다. 기존



그림 · 최주현

의 전통적인 화법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법으로 '황산팔승도(黃山八勝圖)'를 그렸고, 그 작품 세계를 서술하는 〈화어록(畵語錄)〉을 집필했다. 석도는 그림 그리기 이전에 작가의 철저한 선(禪)적 수양과 기술이 완숙돼야 또 하나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일획'이 회화의 근본이며, 일획을 체득한 화가만이 독창적인 화법으로 만상을 화폭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어록〉, '일획장'에 "일획이 우주의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니 무수한 필묵이라도 일획에서 시작해 일획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적었다. 또한 일획의 법은 무법(無法)으로써 유법(有法)을 낳고, 유법으로써 모든 법을 꿰뚫는다고 덧붙였다.

석도의 일획은 삼라만상의 근본이며 모든 형상의 뿌리였다. 일획이 만 획이며, 만 획이 일획이었다. 일(一)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만유의 근원, 불성(佛性)을 일컫는다. 노자는 천하 만물은 유(有)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無)에서 생긴다고 했다. 무(無)가 일(一)이고, 그 일에서 만물은 제 모습대로 생겨난다는 것이 아닌가.

석도는 오랜 세월 산천을 주유하며 불자들을 친구로 삼았다. 형상의 외형 뒤에 숨겨진 본성을 찾고자 여러 산을 올라 명상을 했다. 드디어 황산에서 심안이 열려 자연과 혼연일체가 됐다. 소나무가 나이고, 내가 황산이었다. 그 일체의 본성이 여래장(如來藏)인 것을 깨달았다. 석도는 대자연에서 터득한 그 만법일여(萬法一如)의 도(道)를 화폭에 담았다.

저 신묘한 소나무를 그리는 석도의 일획에서 만법의 근원이, 먹물의 진하고 옅음에서 삼라만상이 태어나고 있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범석수불 대율사 (전,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갈마아사리 관허수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수아사리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및 교수사)
존증아사리 심산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원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존증아사리 혜성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